

한국여성재단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양재역근처 환경정책연구소 사무실의 한 옆을 빌려 한국여성재단의 업무를 시작하여, 2000년 3월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동지점 5층에 있는 사무공간을 국민은행 서초동지점으로부터 지원 받아 독립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명의 실무진으로 업무를 시작한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하는 많은 기부자들과 한국여성재단의 파트너 단체 및 기관들의 애정과 협력 덕분에 차근차근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이 다양해지고 확장되면서 실무진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5명의 실무진이 일하기에 적당했던 사무공간은 늘어나는 서류들로 채워지고 회의공간이 없어, 주변의 식당이나 찻집을 회의장소로 이용하기에 이르러, 불필요한 경비지출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고 관련부처의 허가를 득하여 서교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을 매입 하였습니다.

2006년5월28일자로 (재)한국여성재단의 소유가 된 한국여성재단건물은 1989년 건축된 건물로 전소유자인 ‘한국교육출판사’에서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공간을 임대하기로 하였고, 재단은 5층에 새 일터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새 일터가 된 건물 5층의 내부공사로 시작하여 두배 이상 커진 사무공간에 필요한 사무집기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우림건설에서 저렴한 공사비용으로 정성을 다하여 내부수리공사를 진행해 주신 ‘신성하우징’을 소개하여 주었고, 내부 인테리어와 전자채구입 등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재)가천 길재단의 이길여이사장(한국여성재단 이사)은 한국여성재단건물 벽과 현관 입구에 설치된 ‘한국여성재단’간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재단의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 수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되어 그 기쁨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주)폴무원에서는 최근 사무실을 정리하는 회사의 집기들 중, 필요한 것을 골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회의실의 회의탁자와 의자, 에어컨 등

새 일터에 꼭 필요한 집기들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유니베라는 5개의 평면모니터와 사무용 책상 추가구입을 위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주)교보생명의 지원으로 이사장실에 필요한 사무집기 일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일부는 재활용매장에서 구입하였지만 새로 구입한 집기와 잘 어울려 마치 새로 맞춤 제작한 듯 한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주)OA영동, 미래포럼의 법인회원 기업, 은 디자인 담당팀장님을 파견하여 새롭게 꾸며진 공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디자인을 도와주셨고, 몇가지 새롭게 구입해야하는 사무집기를 마진없는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우리 재단의 이름이 크고 뚜렷하게 보이는 우리 재단 건물에 새로이 마련한 일터는 이른 아침, 재단의 이름이 크게 걸려있는 것을 보며 출근하는 모두의 걸음에 새로운 힘과 기쁨을 실어줍니다. 아직 큰 공사가 남아있고, 여전히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청합니다.

집기는 사용가능한 중고품도 환영합니다. 최근 새로이 출범한 단체들과도 공유할 계획임으로 불필요한 사무집기들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의 꾸준한 성장에 늘 함께 해주신 기부자님들과 파트너기관 활동가님들, 사업을 통하여 만났던 협력회사 실무자님들 모두께 재단 식구 모두가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꾸며진 일터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숙된 자세로, 늘 거듭나는 성실한 자세를 지키며 딸들에게 희망이 키워질 내일을 위하여 주어진 소명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